

거리예술축제로 마을 활기 불어넣는다

'낭만 프린지 무주·안성' 성료... 3천여명 찾아 공연·전시·체험 등 즐겨

무주군이 안성면에서 선보였던 '2023 낭만 프린지 무주·안성' (이하 '낭만 프린지 무주')의 흥겨웠던 여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안성면 행정복지센터, 안성 복합어울림센터, 안성 청소년문화의집, 덕유산 장터 등지에서 개최됐던 이번 축제에는 아티스트 2백여 명을 포함한 무주군민은 물론, 전주와 대전, 청주, 익산 등 전국에서 총 3천여 명이 찾아 대성황을 이뤘다.

'더울'과 '시엘', '푸른꿈고등학교', '무주군민 합창단', '무주 반디 오카리나 앙상블', '소리샘', 'M문화예술단', '불꽃장구', '안성 한마음 봉사단', '춤아리', '해움달' 등 무주군민들로 구성된 총 21개 팀 150여 명의 실력과 아티스트 공연이 '마을 중심 문화예술축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 주며 호응을 얻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활동 중인 거리공연 아티스트(총 9개 팀 50여 명)들이 보여준 마술과 미임, 서커스, 드로잉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관심을 모았으며 '공통체와 자연, 문화 예술'을 주제로 한 영화 상영도 인기를 끌었다.

안성면 내 빈 건물에 마련한 '안성 특별 전시장'에서는 이공우 감독과 유즈그루인 밴드가 안성면이 배경이 되고 주민들이 주인공인 '나의 마을, 안성'이라는 제목의 미디어 전시를 진행해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다.

무주군 청년 농부 공동체 '무작정 농부' 팀과 인근 지역 청년 농부들이



무주군이 안성면에서 선보였던 '2023 낭만 프린지 무주·안성'의 흥겨웠던 여정을 마무리했다.(사진은 불꽃장구 공연 모습)

토코로 만났던 '무작정 농부 팝업 스토어'를 비롯해 '협동조합공간', '안영옥', '레진 플루이드 아트', '덕유산 사계 사진전' 등 무주 주민들이 참여·운영했던 전시·체험 프로그램도 색다른 재미를 안겨줬다.

안성면 거리 내 식당 및 카페 등 11개 상점이 참여한 '낭만상점' 할인 쿠폰 이벤트와 장날 맞이 이용 고객 선물 이벤트 등 진행된 덕유산 장터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낭만 프린지 무주'를 주관했던 무주산골문화재단 관계자는 "낭만 프린지 무주는 무주군 안성면을 무대로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과 청년 커뮤니티, 주민들이 동참해 완성을 시킨 새로운

형식의 거리예술축제였다"며 "여기에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이 시너지효과를 불러오면서 완성도와 만족도 높은 축제를 만들 수 있었다"고 밝혔다.

'낭만 프린지 무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3년 지역문화 활력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시도된 것으로 마을과 마을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형식의 문화예술축제는 접에서 이목을 끌었으며 확대·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키우고 있다.

또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시행을 앞두고 마을 관광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미치지 못 영향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방소멸대응기금 144억원 확보

장수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최고등급 'S등급' 받아

장수군이 2023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아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44억원을 확보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재원으로, 인구감소 지역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평가해 매년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각 지역의 우수 기업사업 발굴을 위해 우수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금액 차이를 확대했다.

이번 평가에서 장수군은 강원 태백시, 충남 부여군, 경북 의성군 등과 함께 상위 5% 안에 들며, 호남권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다.

이에 군은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점이 가장 지역소멸 위기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워라벨 활력충진소 장수군'을 목표로 청년인구 유입·정착·유출감소의 3단계 실천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세부사업으로는 청년 워라벨 농군사관학교, 청년활력센터, 장수 트레일빌리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선정했다.

지난 7월부터 지역여건분석 및 전략 수립, 기금사업, 타 재정·정책 연계 방안, 운영 및 관리체계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거쳤다.

최훈식 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해 지역적으로 팽배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활력이 넘치는 장수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내년도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제5회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 18~19일 개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김장축제인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가 오는 18일~19일까지 진안고원시장 임시주차장(진안읍 군상리 479-24)에서 개최된다. 다섯 번째를 맞는 이번 김치보쌈축제는 진안YMCA(이사장 이종학)의 주관으로 그동안 감정을 하는 일반가정을 위주로 선착순 접수를 받고 현장에 서 김장 위주로 행사로 진행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김장 문화라는 전통의 문화를 온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간다.

고원의 삼(三)맛소로 후파지 보쌈, 마걸리 등의 음식들을 선보인다. 또한 다채로운 체험활동 및 플라마켓, 김장 굿덴블 등의 행사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문화공연, 지역에서 활동하는 실력파 가수 및 밴드 등의 콘서트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축제에서 사용되는 절임 배추와 김장양념은 진안고원의 고향지 기우에서 자란 신선하고 맛있는 배추와 고춧가루를 재료로 만들어 믿음이 가고 진안고원 우수한 농산물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마을기록가 양성교육 '마을영화 시사회' 열려

진안군은 6일 마을기록가 양성교육을 통해 진안읍 학천3동 마을과 동향면 봉곡마을 주민 등이 직접 참여한 마을영화 시사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군은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마을기록가 양성교육을 운영하며 마을영화 제작을 해왔다. 이는 마을 주민들의 일상 에피소드와 마을만들기 활동을 주민 영화제작 방식으로 기록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백운면 원동창 마을과 정천면 마조마을에 이어 올해는 학천3동 봉곡마을이 참여했다.

마을별로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시나리오 작성법 △영상 촬영방법 △감독과 배우 되어보기

로 구성되어 진행했다. 총괄 감독으로 작년에 이어 오랫동안 진안의 마을과 주민들을 소재로 영화 작업을 해 온 정천면 출신의 임혜령 감독이 강사를 맡아 진행했다.

특히 주민들이 마을 이야기를 발굴하고 스토리와 연출, 출연 등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됐고, 이웃 간에 만남의 기회와 느슨해졌던 소통의 자리가 다시 마련됐다.

지난 2일 진행된 시사회에서 학천3동 마을은 '학천3동 사람들', 봉곡마을은 '봉곡 멋쟁이'란 제목으로 마을의 쓰레기 문제를 주제로 했지만 접근 방식과 내용은 두 개 마을만의 특색을 담은 영화를 상영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거리 곳곳 풍성한 예술의 향연 펼쳐져

진안고원시장 문화예술공연·지붕없는 거리 미술관 등 추진

진안군은 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리문화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행사들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먼저 진안고원시장에는 연 6회 장날에 맞춰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대중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리 공연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판소리·태평소 연주·성악·바이올린 연주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또한 별도의 무대가 아닌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공연이 진행되어 관객들과 공연자가 상호작용을 하며 즐길 수 있고, 체험 부스 등을 운영해 어르신들



도 문화체험을 편하게 접할 수 있다.

5회에 걸쳐 펼쳐진 '진안고원시장 문화예술공연'은 오는 9일 마지막 행사를 통해 주민들과 만나게 된다.

특히 지난 10월 25일 오픈한 '지붕없는 거리 미술관'은 개성 있는 미술 작품을 거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거

리 미술관은 K-water 용담댐지에서 추진한 프로그램으로, 일상적인 물건들을 예술 작품의 '오브제(주제)'로 활용한 거리 벽화 작품 조성사업이다.

진안 로터리에서 군청 방면에 이어지는 거리 곳곳에 특별한 변화를 배치해 대형 벽화부터 작은 소품을 통한 그림까지 다양한 벽화를 감상하는 즐거움과 공공장소에서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정상식 문화체육과장은 "다양한 거리예술이 삶의 공간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주고 있으며, 예술과 문화를 보다 폭넓게 대중과 공유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지역 소식 통

장수군,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 수립

장수군이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으로 장계2지구, 금덕지구, 두산지구(1,509필지, 53만 9599.1㎡)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군은 3개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주민공람·공고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도면에 등록된 지적을 디지털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과 국민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김홍영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이용의 적정성을 높여주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다문화가족 어울림마당 행사 성료

진안군은 지난 4일 진안문화체육관광에서 다문화가족,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어울림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필리핀 전통 마스카라춤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유공자포상, 화합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진안읍 진서현 △백운면 윤세리 총 2명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다양한 행사와 체험으로 지역 주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인식개선 및 가족 간 관계 증진을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전춘성 군수는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노력해오신 김진진 안군사회복지협의회장님과 박주철 진안군가족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다양한 가정들이 지역 사회에서 더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